



07-16 (통권 143호)

2007.4.20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제조업 성장률, 증가 추세로 전환
- 파운드貨 초강세

경영 노트

- 코오롱, '항구적 무과업' 선언
- 獨 기업들의 '국적 포기'

사회 트렌드

- 명품의 '대중화'
- 세계 1위의 번역서 시장

저널 브리프

- 펀드백화점 시대 '활짝'

洗心錄

- 리더십과 믿음

□ 제조업 성장률, 증가 추세로 전환

-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과 고용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가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전자, 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기술력 향상의 근거로 기술집약적 부품 및 소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지난 95년 24.1%에서 지난해 16.8%로 떨어진 것을 들 수 있음
 - 앞으로 대기업의 국제 분업이 확대되고 기술 혁신이 높아져 경쟁력이 강화되면 고용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생산자 서비스 부문의 부진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함

□ 파운드貨 초강세

- 17일 파운드·달러 환율이 2달러를 돌파하여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 이번 파운드화의 강세는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형성되어, 이를 노린 대규모의 자본 유입이 있었기 때문임
 - 영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어 금리인상 전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하지만 1파운드의 실질 구매력이 2달러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파운드화는 영국 경제의 경제 기초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파운드화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외환 운용시 파운드화 비중의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재 파운드화가 고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

□ 코오롱 '항구적 무파업' 선언

- (개요) 창사 50주년을 맞은 (주)코오롱 노사가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함으로써 국내 산업계의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이 전망되고 있음
 - 이번 선언은 94년 동국제강이 국내 산업계 최초로 밝힌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대기업으로는 두 번째 선언임
 - 지난해 민노총을 탈퇴하고 올해 임금 동결안을 사측에 먼저 제시한 이후 나온 조치로 새로운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이 기대되고 있음
- (시사점) 코오롱 노조의 변신은 이념 투쟁 대신 상생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려는 의지로 평가됨
 - 노측은 이념 투쟁보다 조합원 복지와 상생에 집중하고, 사측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개선 및 성과급 지급 약속으로 화답함
 - 노사 양측은 갈등과 대립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요구와 희생보다는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해야 함

□ 獨 기업들의 '국적 포기'

- (개요) 세계적인 독일기업들이 노동조합의 지나친 경영참여를 피하기 위해 독일 국적을 버리고 '범유럽기업(SE)*'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유럽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와 세계 굴지의 화학기업 바스프 등 독일 30개 우량기업 중 상당수가 SE로의 전환을 선언하거나 고려중임
 - 유럽기업 가운데 유독 독일기업의 SE 선택이 많은 것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독일 특유의 회사법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시사점) 글로벌 시대에는 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지나친 참여와 간섭은 기업 경영 의지와 경쟁력을 감소시켜 기업의 국적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음
 - 노조의 지나친 경영 참여는 경영의 투명성은 높이지만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주주의 이익과 충돌하는 등 경영권 행사에 걸림돌이 됨
 -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법안들은 자칫 경영 의욕의 저하와 기업의 국적 이탈의 원인이 되므로 충분한 정책적·사회적 검토가 필요함

* (Societas Europaea, SE) 유럽 국가별로 상이한 회사법이 적용되는 데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도입한 제도로 SE에 등록하면 자국 법 대신 EU회원국의 공통 분모를 모은 EU 통합회사법을 따르게 됨

□ 명품의 '대중화'

- 해외 명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지속되면서 명품 매출이 지난해부터 매월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지난 3월 명품 매출 증가율은 16.1%로 지난해 2월 26.6%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8월과 10월을 제외하고 매월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함
 - 루이비통코리아는 매출이 2005년 893억 원에서 지난해 1,213억 원으로 35.8% 늘어났고 순이익은 무려 92.7%나 향상되었음
 - 불가리코리아의 매출은 215억 원에서 276억 원으로 28.4% 증가함
-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명품 판매액만 가파르게 성장하는 왜곡된 '명품화' 소비 행태가 나타남
 - 주요 백화점들은 떨어지는 매출을 잡기 위해 명품 세일에 열을 올리고 있고, 명품이 '대중화'되면서 한정 수량의 스페셜 에디션까지 등장해 일반 상품의 2~3배 가격에 팔리고 있음
 - 진정한 명품 소비란 가격이나 유행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명품이 '대중화'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세계 1위의 번역서 시장

- 국내에서 발행되는 책 중 번역서 비율이 2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음
 -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는 한국어 번역본이 320만 부가 팔려 프랑스어 번역본(540만 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최근에는 외국어 원저와 한국어 번역본이 동시 출간될 정도로 번역에 대한 열기가 높음
 - 나라별로는 일본 번역서가 40.2%로 가장 많고, 미국(25.2%), 영국(9.9%), 프랑스(6.0%), 독일(6.0%) 순임
- 세계 7위 출판시장의 명성에 걸 맞는 양적, 질적인 수준이 요구됨
 - 전체 번역물의 2/3는 만화(26%)와 아동(21.8%), 문학(19.6%)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학술서 번역은 양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교양서 번역에 비해 고전 번역은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평가임
 - 이러한 편차는 인기와 업적 위주의 번역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좀 더 성숙된 출판문화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펀드백화점 시대 ‘활짝’*

- (개요) 최근 국내 펀드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채권, MMF, 주식투자 이외에 해외펀드, 실물, 산업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상품의 비중이 늘고 있음
 - 대체투자 상품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04년 4.4%, 2005년 9.5%에서 2006년에는 전체 펀드시장(235조 원)의 13.9%를 차지함
 - 대체투자 대상은 해외펀드에 대한 재투자과 간접투자를 비롯하여, 부동산과 인프라, 선박, 유전, 광물, 연예산업 등의 국내외 실물자산임
- (내용) 2005년 이후 다양한 종류의 대체투자 상품이 개발되어,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선보인 펀드의 거의 모든 종류가 국내에 출시되고 있음
 - 금·은·동, 커피, 설탕,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물론, 물 부족과 온실가스 문제에 착안한 물 펀드와 탄소 펀드 등도 등장함
 -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일부 해외 투자 펀드는 30%가 넘는 고수익을 실현하여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음
- (문제점) 그러나, 투자대상만 다변화되었을 뿐 운용전략이나 기법 측면에서는 기존과 별 차이가 없어 진정한 펀드 다양화는 아니라는 지적임
 - 자산운용사의 투자전략이 비슷하고 벤치마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투자자들은 주로 지난해 펀드 성과에 기초한 투자를 반복함
 - 펀드들이 다양화하면서 단기 수익률만을 강조하여, 투자자들의 펀드 갈아타기를 유도함으로써 운용사들의 수입만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음
- (개선 과제) 국내 펀드시장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품 다양화와 함께 펀드를 대형화하고 투자기간을 장기화하며 운용전략을 다변화해야 함
 - 펀드 관리 비용 절감과 분산투자를 위한 펀드 대형화는 필수이며, 펀드규모가 커지면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함
 - 국내 펀드는 55.7%가 100억 원 미만인 반면, 미국은 펀드 1개당 평균 1조 1,600억 원이 설정되어 있음
 - 투자 기간 장기화를 위하여 언론과 운용사는 단기 수익률 강조를 자제하고, 감독당국은 장기투자자에게 세제혜택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함

* 이 글은 『주간동아』(2007.4.17)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리더십과 믿음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는 목표로 하는 성과에 도달했느냐로 평가할 수 있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하 직원들을 일사분란하게 통솔하기보다는 자발성을 유도하여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하들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과 신뢰를 형성하여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공자도 ‘군지시신여수족(君之視臣如手足), 즉신시군여복심(則臣視君如腹心)’ 즉, ‘임금이 신하를 대할 때 내 몸의 손과 발처럼 중요하게 여긴다면, 신하는 임금을 자신의 배와 심장처럼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 했다.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제갈공명은 원래 초야에 묻혀 지내던 농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유비가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청년에게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였던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 주고 세 번이나 무릎을 꿇히는 모습에 제갈공명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유비에게 충성을 다하였다.

상대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보상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비록 보상은 작을지라도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즉 자기의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감동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한자 알 지(知) 자에는 단순히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부하가 고생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어야 한다. 진실로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키우고 포용력과 너그러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확신시킬 수 있다.

- 조제프 주베르(1854-1924) : 프랑스의 도덕론자, 작가